

# 무안공항 '안개 습격'...5일째 파행 운항

### 전세기 10여편 잇단 결항...중 관광객들 제주로 발길 돌려 공항시설 등 열악 가시거리 550m 미만 땀 이·착륙 금지 항공사·여행업체 울상 속 결항 계속되면 지역경제 악영향

무안국제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중국, 일본을 오가는 전세기 10여편이 잇따라 결항하는 등 공항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최근 닷새 동안 극심한 안개 탓에 무안공항의 가시거리가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800m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시간대 이·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11편 가운데 8편이 결항되고 3편이 착륙지를 변경했다. 항행 시설 등 공항시설이 미흡한데다 기상까지 악화돼 무안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용객과 관광업체, 민간 항공사 측 불편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일본 기타규에서 출발, 이날 새벽 2시35분 무

안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스타플라이어 7G9611편이 무안공항에 짙게 낀 안개로 결항되는 등 이 항공사 항공편만 지난 15일부터 6편이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고 있다. 이날 오전 6시50분 무안공항에서 중국 장가계로 출발할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TW901편도 시야를 가린 안개로 결항하는 등 이 항공사 소속 항공편도 지난 15일부터 2편이 결항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 기간 중국에서 출발, 무안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3편도 착륙지를 제주공항(2회)과 인천공항(1회)으로 급히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닷새 동안 무안공항을 이용할 예정이던 국제선 항공기 11편이 결항 내지는

착륙지 변경이 이뤄진 배경에는 자연 현상의 일종인 짙은 안개와 인위적 조건인 열악한 공항 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자정~오전 9시까지 무안공항의 가시거리는 50~800m 수준에 머물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여기에 인천-김포공항이 가시거리가 50m 수준만 확보되면 이·착륙이 가능한 것과 달리 무안공항은 가시거리가 550m 미만일 경우 이·착륙이 금지되는 것도 무안공항의 결항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화 및 전파장비를 통해 활주로 상황과 이착륙 높이를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설비가 김포-인천공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결항 사태가 잇따르면서 항공사와 여행업체 측은 울상을 짓고 있다. 비용과 정성을 들여 정기 노선이 취항하지 않는 국제 노선을 준비해 탑승객(관광객)을 끌어들이

었지만, 기상과 공항 시설이 따라주지 않아 연일 손실은 물론 대체 항공편 마련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사. 스타플라이어 측 관계자는 “닷새 연속 예정됐던 항공기가 뜨질 못하고 있다. 안개 등 기상 여건과 함께 공항 시설이 낙후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잦은 결항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무안공항 능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서 “날씨 탓에 결항사태가 앞으로 1주일 가량 지속된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무안공항 설비 자체가 김포-인천공항 수준에 못미치는 데다 활주로 길이와 너비, 조종사 등급(숙련도)도 차이가 나면서 기상에 따른 이착륙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무안공항의 경우 착륙 유도설비 자체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갖춘 시설이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큰 일교차·해무에 가시거리 50여m 불과 일주일 지속...정상운항 당분간 어려울 듯

**유례없는 안개 원인**

무안공항을 엄습해 여객기 무더기 결항을 불러온 '유례없는' 짙은 안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지속될까. 기상청은 안개의 원인을 큰 일교차와 바다와 인접한 지형에서 찾고 있으며, 최대 1주일 가량 밤사이 짙은 안개가 계속돼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힘들게 할 것으로 관측했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과 무안공항 기상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이날까지 밤사이 지속된 짙은 안개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벌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낮사이 기온이 20도 중반까지 치솟아 대기중에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가 해가 진 이후 급속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 짙은 안개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안공항이 해안과 인접,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점도 무안공항이 광주 등 내륙지방보다 짙은 안개가 끼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낮사이 증발된 바닷물이 대기를 타고 밀려오다가 밤사이 응결되면서 짙은 안개를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안공항 기상대는 휴일인 25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10~12도, 낮 최고기온이 22~25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밤사이 무안공항 일원에서 짙은 안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대 관계자는 “무안공항에서 밤사이 짙은 안개가 5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교차, 해안에 자리잡은 지형적 특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일교차와 지형적 특성은 예년과 동일할텐데도 올 들어 유례없는 정도로 짙은 안개를 몰고온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폐건전지 선별** 광주시 북구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직원들이 19일 오전 북구 건국동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폐건전지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리조트서 대학생 추락 사망**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20대 대학생이 리조트 베란다에서 추락, 경찰이 조사 중이다. 19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0시56분께 화순군 한 리조트 9층 객실에서 경복지역 한 대학교 학생 A(25)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객실에 딸린 베란다에서 B(31)씨 등 대학원생 선배 2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A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감정 변화가 심한 것처럼 보였다”며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릴 틈도 없이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A씨 일행은 모두 4명으로 최근 지질조사 차 화순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폭력조직 '범서방파' 사실상 와해

**김태훈 후계자인 고문 구속** 유형업소 보호를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흥기대치 사건 이후 6년 만에 검거된 나씨를 상대로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조직을 운영했는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범서방파는 1989년 6월 두목 김태훈, 부두목 이모 씨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 조직된 '서방파'를 규합해 결성한 폭력 조직이다. 한때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다. 김태훈이 1990년 5월 구속된 이후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조직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2013년 1월 김태훈이 사망하면서 더욱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나 대부업 등 합법을 가 장해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이권 분배에 개입하는 등 꾸준한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 경찰은 나씨를 구속하기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범서방파 부두목 김모(47)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서방파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건물 유자권 분배에 개입하거나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살인 혐의 세월호 선장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항해사·기관장 등 14명도** 과 처해진 해운 법인이다. 김정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3 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시키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관장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 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선장과 1·2·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15명 /연합뉴스

**술 떨겠나...구급차 이송 50대, 119 대원에 주먹세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던 50대 관광버스 기사가 자신을 깨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119 구급차를 폭행했다가 구속될 위기. ○...19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오모(51)씨는 지난 18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재과점 앞에서 자신을 후송하던 구급대원 A(30)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 ○...오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흔들여 깨운 뒤 반복적으로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묻길래 주먹을 휘둘렀다”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복 입은 소방관인 줄 미처 몰랐고, 길에 쓰러진 나를 도와주려고 흔들여 깨운 것인지는 더더욱 몰랐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2015년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

### 2015년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 청년 창업자를 찾습니다

침체된 무등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 내 점포를 임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오니,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2015.10.15(목)~10.29(목) 18:00까지

- **지원내용** 창업교육, 체험정보 운영, 인차로, 인터넷에 정부지원금(총 소요비용의 60% 이하), 컨설팅, 홍보, 마케팅지원, 멘토링 등
- **신청자격**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로서 문화예술·공예 등 분야 또는 등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만20세 ~ 39세 이하인 재시업고졸(기초)
- **상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군포로 27구(원동)
- **지원규모** 청년 10팀(남구 무등시장 내 10개 점포) / 아이템: 문화예술·공예 분야, 기타 등
- **우대사항** 문화예술·공예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 **심사과정** 1차 서류심사: 2015. 10. 30(일) ~ 2015. 11. 3(화)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2015. 11. 5(목) ~ 2015. 11. 6(금) 개별통지
- **재출서류** 신청서(4부), 창업계획서(4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1부
- **접수방법** 무등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사업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및 메일접수 : cabkeyun@parmalnet (미감일 29일 도착분에 한함) 지원양식: http://www.mys.co.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재출처** 무등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단 / 전 화: 062-670-2838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광주대학교 국기관 3층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 공학기술 전문분야 창업지원사업자로 국제 출신자, 단, 신용보증기금의 창업지원사업, 개인투자사업,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지원금 지원을 받거나 과잉투자 신청자는 창업지원 대상, 지원금 등 특수목적 지원사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채납 중인 자, 정당한 사유로 창업지원금 지급을 정지된 자, 신청일 현재 사업중지(해당 지원금 지급이 정지된 사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99.9% 이상, 연인, 인종인종에 해당하는 법인이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 못한 경우

**주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 광주광역시 남구 무등시장청년창업지원사업단

##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토요일,주말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수제육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